소송,파산관재,채권회수,기업법무,투자컨설팅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yisngmin@gmail.com
(021)525-5959, 0816-1911-245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www.haninpost.com

정직 · 성실 · 전문성
woori
우리컨설팅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HP : 0811-1543-456
카카오톡 아이디: hzkim2003 , wooricon2
www.woori-consulting.com

2005년 10월 5일 창간 | 주간 제1028호 | 광고/구독 문의: 카톡 haninpost | 유료 : 35만 루피아/월 4회 e-Paper | 2026년 9월 4일

2026년 산불·토지화재 확산 심화…
“경제·건강 손실 잠재액 123조 1천억 루피아 육박”

- 수마트라 · 칼리만탄 넘어 인도네시아 동부 파푸아까지 위협 확산
-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 최대 1,740만 명 발생 우려… 국가 보건 예산 67% 맞먹는 손실
- 싱크탱크 CELIOS, “단순 기상 이변 아닌 인재(人災)… 국가재난 선포 및 전면 감사 촉구”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가 단순한 계절적 재난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대형 복합 위기로 치닫고 있다. 피해 지역의 광범위한 확산과 극심한 스모그 유발을 넘어, 국가 재정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법률연구소(Center for Economic and Law Studies, 이하 CELIOS)는 최근 발표한 심층 보고서 ‘숨이 막히는 사람들과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들’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산불 및 토지 화재로 인한 총경제적·건강적 비용이 최소 39조 2,900억 루피아에서 최대 123조 1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중앙칼리만탄 지역내총생산(PDRB)의 49%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CELIOS의 나일룰 후다(Nailul Huda) 경제국장은 지난 2일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추산된 최고 123조 1천억 루피아라는 손실 잠재액은 2026년 중앙칼리만탄 지역내총생산(PDRB) 전망치의 49.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CELIOS의 부문별 분석에 따르면, 물리적 자산 소실과 생산 활동 차질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도 29조 5,400억 루피아에 달한다. 여기에는 짙은 연기와 재난 상황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무역, 농업, 숙박, 식음료 부문의 생산 중단 타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추산치에 연말까지 이어질 화재 확산 시나리오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후다 경제국장은 “연말까지 화재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출한 수치”라며 “실제 발생할 최종 손실 규모는 오늘 발표된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산림 및 토지 화재 통제 정보 시스템(SIPONGI)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소실된 면적은 이미 20만 2,010.96헥타르에 이른다. 아울러 환경산림부(KLHK) 집행법 집행(Gakkum)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화재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6%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칼리만탄·수마트라 넘어 남파푸아까지… 피해 지역 급증

과거 산불 피해가 주로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이탄지대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2026년에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까지 화재 안전지대가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보면, 서칼리만탄주가 약 38,310.86헥타르가 소실되며 5조 7천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뒤를 이어 남파푸아주에서 약 25,838.53헥타르가 불타 4조 3천억 루피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4조 3천억 루피아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CELIOS는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순세수 감소분이 약 2698억 6천만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목재 가공, 펄프·종이, 가구 산업 등 연관 산업을 통해 타격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전망이다.

◇ 국민 건강에 치명타… 의료비 손실만 최대 93조 루피아 육박

경제적 지표 외에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파장은 재난의 심각성을 더한다. CELIOS는 약 178만 명이 급성 호흡기 감염증(ISPA) 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로 인한 직접·간접 의료비용만 약 9조 7,500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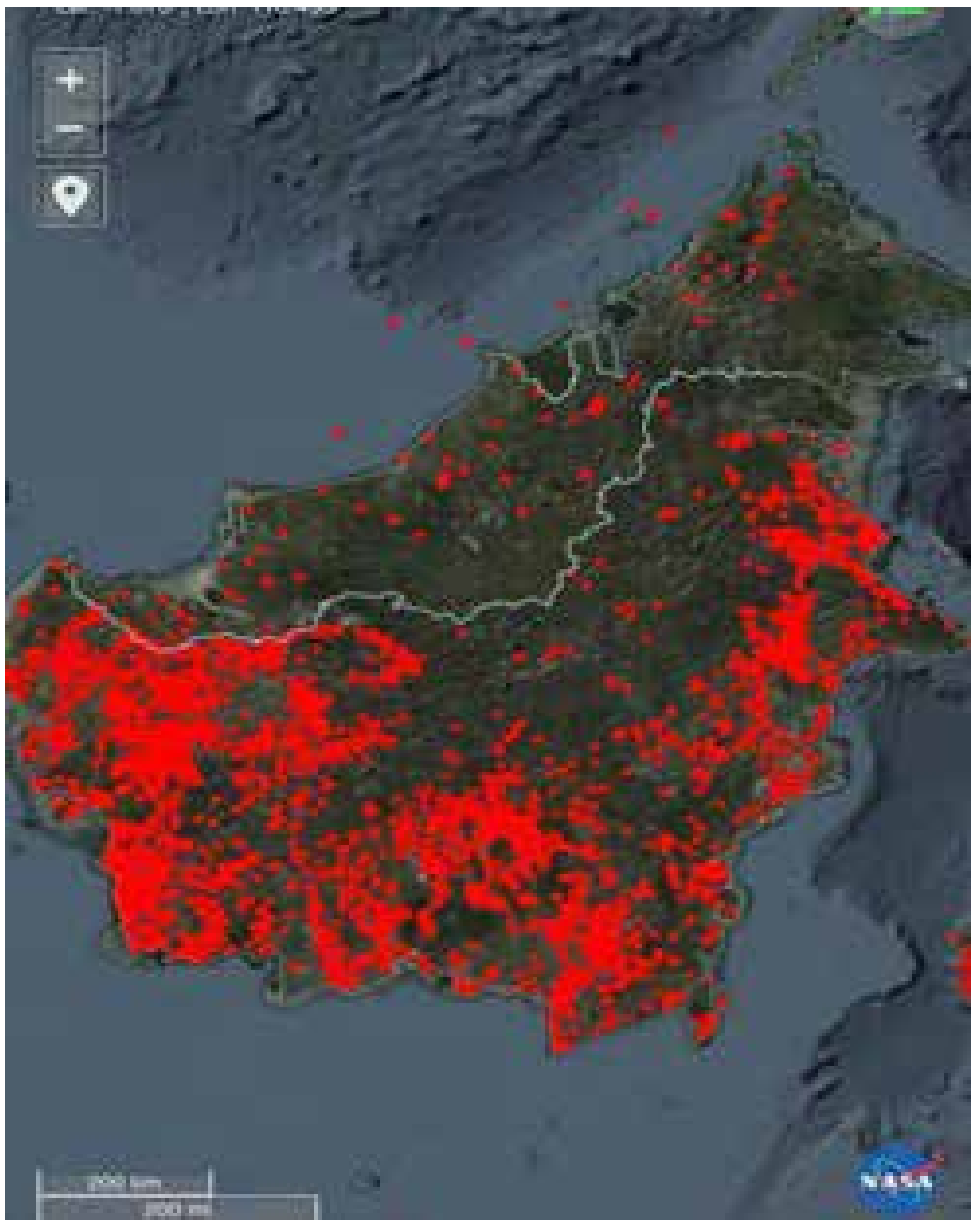
특히 후다 국장은 “제때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잠재적 ISPA 증상자까지 포함할 경우, 영향을 받는 국민은 최대 1,74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총 의료비 추정액은 약 93조 5,600억 루피아로 치솟게 되는데, 이는 2026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APBN) 보건 기능 총예산의 67.6%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 “기후 이변 아닌 인재(人災)”… CELIOS, 정부에 전면적 대책 촉구

이처럼 국가적 재난 수준의 손실 잠재력이 가시화되자, CELIOS 집행부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CELIOS 집행국장은 “이번 산불과 토지 화재를 단순히 슈퍼 엘니뇨 등 극단적 기상 조건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장기 가뭄은 전제 조건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무분별한 개발과 추출 산업으로 인해 취약해진 이탄지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마 국장은 특히 정부의 기존 예방 정책이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허가 유예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 데이터는 위협이 남파푸아의 이탄지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특히 남파푸아의 고강도 화재가 식량단지(food estate) 및 바이오에탄올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토지 개간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NASA가 발표한 칼리만탄 지역 산불 지역 (foto:google)

이에 따라 CELIOS는 정부를 향해 4가지 긴급 요구 사항을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정부는 2026년 산불·토지화재 사태에 대해 국가재난 상태를 선포하고, 대피소 설치 및 취약계층의 긴급 의료 후송 등 피해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프로젝트(PSN) 지위를 가진 사업과 광업 부문을 포함한 팜오일 플랜테이션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와 사업 허가 평가를 단행해야 한다. 허가 취소 처분을 포함한 감사 결과는 즉각 투명하게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과거 2024년 해체된 습지 및 맹그로브 복원청(BRGM)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통합 생태계 복원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원인 제공 기업의 허가 취소 절차와 강력하게 연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ELIOS는 산불·토지화재 대응을 단순 환경 정화 차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제 회복력을 사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할 것을 주문했다.

비마 집행국장은 “예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만이 국민, 기업, 그리고 국가가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청정원
DAESANG

사장님의 고민은 줄이고, 요리의 품격은 올립니다!

NEW ITEM





압도적인 가성비

~~Rp.599.000~~

Rp.480.000

HARGA EKONOMIS

"프리미엄의 완성"
좋은 고추장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 봅니다

KUALITAS PREMIUM, CITARASA LEZAT!

HALAL INDONESIA
ID00410020848741024



안전관리인증 HACCP
소비자중심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세계일류상품

SCAN FOR MORE INFO

추가 정보 및 주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INFORMASI LEBIH LANJUT & PEMESANAN:
0821-3000-6262

인도네시아 하원, '노동보호법안' 하원 발의 법안으로 전격 가결

-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및 일자리창출법 후속 조치…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
- 플랫폼·비공식 노동자 포용 및 노동시장 법적 확실성 제고 기대
-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앞두고 입법 절차 본격화… 재계·노동계 균형점 주목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인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번 가결은 향후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 전반의 법적 틀을 재편하고,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전원 찬성으로 하원 발의 법안 확정

인도네시아 하원은 지난 목요일(2026년 8월 27일) 수도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보호법안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원내 전 정당 교섭단체(Fraksi) 대표단이 본회의 의장인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하원 부의장에게 서면 소수 의견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어 의사봉을 이어받은 추춘 아흐마드 샴수리잘(Taufik Basari 등 원내 지도부) 하원 부의장이 참석한 의원들을 상대로 제9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의 하원 발의 채택 여부를 물었으며, 참석한 모든 하원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동의합니다"라며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정식 하원 발의 법안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향후 본회의 심의 및 최종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헌재 결정 이행 및 세부 조항 보완 거쳐

본회의 전날인 수요일, 하원 입법위원회(Baleg)는 법안 발의 주체인 하원 제9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다. 양 위원회는 법안의 조문화 정합성 검토를 비롯해 종합 및 법안 개념 구체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제9위원회가 최초 마련한 노동보호법안 초안은 총 20장, 262개 조항 규모였다. 그러나 입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6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82조 등 5개 조항에 걸쳐 총 6개 항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한층 더 정교화됐다. 아울러 원내 합의를 통해 경과규정을 담은 제258조A와 부칙의 제261조A 등 2개의 신설 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어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일자리창출법(Undang-Undang Cipta Kerja)의 위헌 심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비공식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 반영

하원 제9위원회의 푸티 사리(Puti Sari) 부위원장은 이번 노동보호법안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고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다. 푸티 부위원장은 정합성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완성도 높게 보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만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생태계 내 모든 주체의 이해관계를 거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 역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번 법안에 비공식 부문 근로자 및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기가 경제(Gig Economy)의 확산과 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고용 형태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존 노동 규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확실한 법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 Wakil Ketua DPR RI Cucun Ahmad Syamsurijal.
(Foto: YouTube TV Parlemen)

푸티 부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에는 비공식 부문 근로자에 대한 명문화뿐만 아니라, 급성장하는 디지털 산업의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개정된 노동법(제13/2003호)을 비롯해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는 점도 이번 단행법 제정의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재계와 노동계의 균형점 모색… 2026년 10월 제정 시한 주목

'노동보호법안'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고용 창출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근로자 보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재계와 노동조합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법안은 고용 관계에서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수요와 국가 경제 발전의 궤를 같이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의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회장은 새로운 명칭에 걸맞은 균형 잡힌 본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무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보호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고용 기회의 확대가 보호 개념의 중요한 일환으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며 "이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사안이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026년 10월로 예정된 최종 법률 제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노동법안에 대한 논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노동보호법안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담아내고,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사설] 인도네시아 '노동보호법안' 하원 가결, 외국 진출 기업이 주목해야 할 균형과 리스크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노동 환경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지 언론과 의회 소식에 따르면, 지난 2026년 8월 27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은 '노동보호에 관한 법률안(R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을 하원 발의 법안으로 채택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3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일자리창출법 위헌 결정(결정번호: 168/PUU-XXI/2023)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 드라이브의 시작을 의미한다.

총 20장, 262개 조항에 달하는 방대한 초안은 입법위원회(Baleg)와 제9위원회의 치열한 조문화 정합성 검토를 거쳐 일부 조항이 추가·수정되었으며, 오는 2026년 10월 최종 제정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현지 공장, 물류망, 그리고 최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번 입법 동향은 단순한 현지 법률 개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향후 수년간 기업의 경영 전략, 인력 운용 비용, 그리고 노사 리스크 관리의 명운을 가를 중대 고비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차례 개정된 '노동에 관한 법률(제13/2003호)'을 비롯해 산재해 있던 노동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수용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고용 관계를 넘어, 비공식 부문 근로자와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까지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긱 경제(Gig Economy)와 이커머스 물류 등 디지털 기반 산업에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활용하는 진출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규제 준수 비용과 고용 형태 재편 압박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외국 진출 기업의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할 지점은 노동계와 재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과연 '균형추'가 어디에 맞춰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초 '노동법안(RUU Ketenagakerjaan)'으로 논의되던 명칭이 재계와 노동조합의 제안을 수용해 '노동보호법안'으로 선회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Apindo)의 신타 캄다니 회장이 지적했듯, '보호'라는 이름 아래 고용 창출과 재계의 투자 유인책이 위축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푸티 사리 하원 제9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 생태계 내 모든 주체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듯, 향후 진행될 세부 심의 과정에서 이 원칙이 실질적인 조문으로 구현되는지가 관건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시각에서 이상적인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 속에서 기업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고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법안이 지나치게 경직된 해고 규정이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기업 측에 지우는 방향으로 변질된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발목을 잡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나 위탁 경영을 주로 하는 외국계 물류·IT 기업들에 과도한 사용자 책임을 묻게 될 경우 현지 진출 모델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관련 경제 단체들은 오는 10월 최종 제정 시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수동적인 관망세를 버려야 한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및 코트라(KOTRA),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입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원 제9위원회와 입법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널을 가동해야 할 때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경제 대국이자 한국 기업의 핵심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이다. 이번 '노동보호법안' 제정이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모범적 입법'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보호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다가올 10월의 폭풍을 대비해 지금부터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프라보워 대통령, 1,140조 루피아 규모 100GW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공식 착공

- 에너지 자립 선언… 원유 · LPG 수입 전면 중단 및 2~3년 내 조기 완공 지시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초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서막을 열었다. 총 투자액만 1,140조 루피아(약 730억 달러)에 달하는 100기가와트피크(GWp) 규모의 태양광발전소(PLTS) 건설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6년 8월 25일(화) 발리주 젬브라나군 길리마눅의 자바-발리 횡단 작전 기념비에서 그라운드브레이킹(착공식)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로산 루슬라니 다난타라 CEO, 이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 등 주요 각료와 인사들이 대거 배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100기가와트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진정으로 스스로의 두 발로 서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지열, 가스, 원유 증산과 더 이상 원유와 LPG를 단 한 배럴, 한 통도 수입하지 않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력 발전용 연료유(BBM)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을 최단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흐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에게 당초 예상보다 단축된 2년 내 완공을 지시하며 "식량 자급자족 과제를 1년 만에 성공시켰듯, 에너지 팀 역시 2년 안에 성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독려했다.

바흐릴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100GWp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단계별로 추진된다. 초기 1단계 사업은 자바바랏, 자바텡가, 자와티무르, 발리, 방카벨리퉁 제도, 리아우 제도 등 6개 주에 걸쳐 총 14개 프로젝트(투자 가치 약 135조 루피아)로 시작된다. 초기 발전 용량은 5.3GWp 규모다.

이 가운데 발리주에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이 포함된 1,000메가와트(1GW)가 배정되었으며, 기존 디젤발전소(PLTD) 사용을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국유지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Presiden Prabowo Subianto meluncurkan proyek PLTS 100 GWp di Bali (25/8/2026). (Dok. YouTube Setpres)

정부는 민간 부문 및 독립전력생산자(IPP)와의 협력을 입찰을 통해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제안된 가격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부펀드인 다나타라 인도네시아 투자관리기구(BPI Danantara)를 통해 정부가 직접 효율적이고 감당 가능한 재원으로 사업을 인수·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경제적·환경적 파급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PLTS와 배터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디젤 사용 대비 연간 73조 9천억 루피아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55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연간 1억 4천만 톤의 CO2 배출 감축과 함께 6조 3,100억 루피아 규모의 탄소경제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HONGSAM BALL
BEST SERVED CHILLED
ZERO CAFFEINE
WITH
Vitamin C, Vitamin B1,
Vitamin B6, Vitamin B12,
and Taurine
EKSTRAK GINSENG MERAH
Vitamin C ⚡ Vitamin B1 ⚡ Vitamin B6 ⚡ Vitamin B12 ⚡ Mengandung Taurin (83 mg / 250 ml)
HONGSAM BALL
HONGSAMBALL
Minuman Berperisa Berkarbonat Dengan Ginseng
(Hongsamball Original)
Red Ginseng Extract
HALAL INDONESIA
Shin Tae Yong
Hongsam Ball Ambassador
STEP IN.
COME BACK STRONG
: hongsamball.id

하원, 2025~2026 회기 민원 9,205건 접수… 대다수 서면 제출

푸안 마하라니 의장, "국민의 삶 개선 위한 정부 역량 강화에 초점"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 Ketua DPR RI Puan Maharani (Foto : DPR RI -Farhan/Andri)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민대표회의(DPR RI, 하원)가 2025~2026 회기 연도 동안 총 9,205건의 대국민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여론 및 청원은 2025년 8월 15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 수집되었으며, 국민들은 서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 화요일(2026년 9월 1일)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의회 복합단지 누산타라 II 빌딩에서 열린 2025~2026 회기 DPR 성과 보고 본회의 및 DPR 창설 81주년 기념식에서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DPR 의장이 직접 발표했다.

푸안 의장은 성과 보고서를 통해 접수된 모든 민원이 정부에 대한 권고안 전달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의회산하기구(AKD)로 이첩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접수 경로를 보면 서면 접수가 7,05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2,011건, 의회산하기구 직접 접수 139건 순으로 집계됐다.

DPR은 이러한 민원 수렴이 입법부의 대정부 감시 기능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국민 여론 반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회산하기구는 향후 정부에 대한 권고안 전달을 포함한 다양한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해당 여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푸안 의장은 "DPR의 감시 기능은 국민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들이 정부의 업무 성과 개선을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감시 기능이 정부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및 법률 집행 보장 노력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PR은 입법, 예산, 감시 및 의회 외교 기능의 수행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비판과 제언을 수용할 방침이다. 푸안 의장은 "비판은 국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DPR이 국민의 삶의 현실과 여론에 항상 밀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민주적 관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5~2026 회기 동안 DPR은 총 1,377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세부적으로는 감시 기능 관련 회의가 736회로 가장 많았고, 입법 기능 332회, 예산 기능 309회였다. 또한 감시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활동 중인 27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42개의 실무위원회(Panja)와 의장단 직속의 4개 감독팀, 1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의회 외교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DPR은 의회간협력기구(BKSAP)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9개의 글로벌 의회 간 포럼, 8개의 지역 의회 간 포럼, 63회의 양자 외교 회의에 참가했다. 이를 통해 평화 구축, 기아 및 영양실조 대응, 팔레스타인 독립,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기후 변화 등 전략적 현안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푸안 의장은 "2025~2026 회기 DPR의 성과는 제정된 법률의 수나 회의 개최 횟수만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의정 활동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역설했다.

이번 특별 본회의에서 푸안 의장은 아흐마드 무자니(Ahmad Muzani) 국민평의회(MPR) 의장과 술탄 나자무딘(Sultan Najamudin) 지역대표의원(DPD) 의장에게 성과 보고서를 공식 전달했으며, 보고서 전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책임성 표명을 위해 모든 계층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성과 보고서의 공식 주제는 "영향력 있는 DPR: 현대적이고 민주적이며 즉각 대응하는 의회를 통한 국민 주권 실현"으로 채택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인 8명 러시아군 모병 의혹 제기… 러 대사관 "모병 진행한 적 없어"



세르게이 톨체노프 주(駐)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 Dubes Rusia Untuk Indonesia Sergei Tolchenov. (Foto: Istimewa)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자 8명이 러시아 연방군에 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들이 전선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SZRU)은 지난 2026년 8월 2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네시아인 8명이 러시아 측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징집되었다고 밝혔다. SZRU는 이들이 최전선의 희생양으로 고용되었으며, 고액 급여, 비전투 임무 배치, 러시아 시민권 신속 취득, 사회보장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외국인 모병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자카르타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즉각 선을 그었다. 세르게이 톨체노프 주(駐)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9월 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러시아 공관이 러시아군 입대를 위한 모병 활동을 진행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톨체노프 대사는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 신분으로 러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입대를 결정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며 대사관은 모병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외교부(Kemlu)가 이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착수한 조사에 대해, 외교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하원(DPR)의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부의장은 해당 인도네시아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무리하게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스코 부의장은 9월 1일 자카르타 의회 단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도네시아 정보당국으로부터 이들의 징집이 러시아 공식 당국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보안요원(경비원) 명목으로 인원을 모집한 뒤 고액 급여로 유혹해 러시아군에 합류시키 방식이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보당국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선제적인 대응 조치와 함께 관련 국가들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정확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FREIGHT CARGO LOGISTICS



▬ 해상운송

- *Neutural Consolidator*
- *Transport Containerized Cargo & Heavy Project Cargo*
- *Custom broker*

▬ 항공운송

- *Worldwide Transportation Service*
- *Project Cargo & Special Cargo (Exhibition, Dangerous Cargo)*
- *Air/ Sea & Sea/ Air Service*

▬ 내륙운송

- *Containerized & Heavy Project Cargo Transportation*

▬ 창고보관 업무

- Wide Warehouse Network

▬ 통관 업무

- Customs Clearance Service
- Processing of Fress Duty List

▬ 컨설팅

- Logistics Consulting Service



PT FREIGHT CARGO LOGISTICS
Gading Bukit Indah Blok A No.5, Kelapa Gading Barat,
Kelapa Gading Jakarta 14240
Telp: +62 21 451 3611, email: import@fcl.co.id / export@fcl.co.id

프라보워 대통령, 푸틴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 동방경제포럼(EEF) 주빈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 위상 제고… 경제·에너지 등 양국 협력 강화 기대



러시아로 떠나는 프라보워 대통령 Foto: BPMI Setpres.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11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주빈으로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소수의 수행단과 함께 지난 1일 밤(현지시간)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로 출발했다. 이번 순방에는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수기오노 외무장관,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브리안 율리아르토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로산 로에슬라니 투자하류화부 장관,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 등 주요 경제 및 외교 부처 장관들이 대거 동행했다.

출국 현장에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을 비롯해 아구스 수비얀토 통합군사령관,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가정보원(BIN) 원장 등 군·경 및 정보기관의 수뇌부들이 참석해 대통령을 배웅하며 굳건한 안보 태세와 내부 결속을 다졌다.

내각사무처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EEF 주빈 참석은 지난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참석에 이어 러시아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 경제 행사에 초청된 두 번째 사례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 내각사무처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초청은 양국 정상이 직접 외교를 통해 구축해 온 긴밀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격상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입지와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측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자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이슬람 세계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계기로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전략적 부문에서 양국 간의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디 처장은 인도네시아의 대외 정책 기조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자유롭고 능동적인(Bebas Aktif)'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넓히는 동시에, 국익과 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외교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극동연방대학교(FEFU)에서 개최되는 제11차 EEF 참석을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어떠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양국 관계를 심화시킬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국방부, 2027년 예산 189조 루피아 확정… 잠정안 대비 50조 루피아 증액



샤프리 샴수딘(Sjafrie Sjamsoeddin) 국방부 장관 Menteri Pertahanan RI Sjafrie Sjamsoeddin. (Foto: Dok. Istimewa)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2027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189조 루피아를 확보했다. 이는 당초 책정되었던 잠정 예산 상한액(pagu indikatif) 139조 루피아에서 약 50조 루피아 대폭 증액된 수치다.

인도네시아 국회(DPR RI) 제1위원회의 우툿 아디안토(Utut Adianto)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월요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샤프리 샴수딘(Sjafrie Sjamsoeddin)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군(TNI) 부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실무 회의 직후 이 같은 예산 확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우툿 위원장은 "2027년 국가예산(APBN)에서 국방부 예산이 189조 루피아로 최종 책정됐다"며, "잠정 상한액이었던 139조 루피아와 비교해 약 50조 루피아의 추가 재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국가영양청(BGN)이 2027년 국가세입세출예산안(RAPBN)에서 240조 2,000억 루피아를 배정받아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국방부가 전체 부처·기관(K/L)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7년도 예산 189조 루피아는 약 187조 1,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던 2026년도 국방부 및 군 예산과 비교해서도 소폭 증가한 규모다. 2027년도 RAPBN 세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은 약 189조 100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약 1조 9,000억 루피아(약 1%) 수준이다.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와 군이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안보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프리 장관은 "이번에 배정된 국방 예산은 국방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군 통합본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조직 단위별로 이미 배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군 앞에 놓인 역동적인 과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샤프리 장관은 "우리 군은 부여된 과업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가가 직면한 재난 등 국내 상황 변화가 국가 국방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 소요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그린 잡 보고서', 최대 1,300만 개 녹색 일자리 창출 잠재력 밝혀

- '그린 잡 에코시스템 포럼 2026'서 이노바시 무다 보고서 발표
- 에너지·제조업·순환경제 등 191개 직종 식별… 인재 양성 및 부문별 협력 과제 대두



인도네시아 그린 잡 보고서 2026(Indonesia Green Jobs Report 2026)' (Foto: dok Inovasi Muda)

인도네시아가 저탄소 및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최대 1,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26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 지속가능성 360 포럼(Indonesia Sustainability 360 Forum)'의 일환으로 개최된 '그린 잡 에코시스템 포럼 2026(Green Jobs Ecosystem Forum 2026)'에서 현지 싱크탱크 이노바시 무다(Inovasi Muda)는 '인도네시아 그린 잡 보고서 2026(Indonesia Green Jobs Report 2026)'을 공식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녹색 인재 양성(Educating the Green Workforce for a Sustainable Economy)'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부, 산업계, 교육 및 훈련 기관, 개발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청년층 등 각 계각층의 이해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약 800만 개에서 최대 1,300만 개에 달하는 신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에너지, 제조업, 순환경제, 천연자원 관리 및 각종 지원 기능을 아우르는 최소 191개의 그린 잡 관련 직종이 새롭게 식별되어, 녹색 경제 전환이 단순한 생산 방식의 변화를 넘어 노동 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잠재력 이면에는 인재 양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도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확산하고 있으나, 자격 인증, 실무 경험, 기술적 역량 등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질적 수요와 교육 현장 간의 미스매치(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노바시 무다의 레스투 안디니(Restu Andini) 의장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린 잡의 성장은 교육, 훈련, 산업 수요, 정책, 취업 기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생태계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함으로써 녹색 경제의 기회가 인도네시아 청년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 개편 ▲직업 교육 강화 ▲직무 자격 인증 체계 개발 ▲그린 부문의 학습 및 취업 기회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드·소프트 스킬의 겸비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노바시 무다는 정부와 산업계, 교육 기관, 자격 인증 기관 및 시민사회의 긴밀한 부문 간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산업계의 수요와 교육·훈련을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그린 잡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 경영센터 종합)

정직 · 성실 · 전문성
woori
우리컨설팅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HP : 0811-1543-456
카카오톡 아이디: hzkim2003 , wooricon2
www.woori-consulting.com

CGV | 2026년 9월 1일 ~ 7일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이번 주 상영!

8월 19일



*호러
*한 채은 엄마가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이사한 후,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4DX 포맷 관람 가능

8월 28일



*애니메이션
*Chiikawa는 특별한 섬의 챔프에 참가하고, 섬의 주민들을 납치한 거대한 '사이렌'과 맞서게 된다.

9월 2일



*음악
*가장 화려한 라이브 팝 공연 중 하나로 펼쳐지는 Katy Perry의 Lifetimes Tour 콘서트. 60개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촬영.





커밍 쑨 in CGV

9월 9일





*애니메이션
*Detective Conan은 치밀한 범인이 계획한 고속도로 사고 사건을 수사한다.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에 시간과의 싸움을 벌인다.

CGV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인도네시아 정부, 러시아 군 참여 의혹 8명에 대해 "철저한 검증 중"

- 사기 피해자 보호와 자발적 외국군 복무에 따른 국적 상실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



자료 - 러시아 용병이 된 인도네시아인 사트리야 아르타 쿰바라(오른쪽 착석) (Foto: Republika.co.id)

인도네시아 정부가 러시아 연방군에 합류하도록 모집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국민(WNI) 8명에 대한 정보에 대해 현재 신중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인원들의 신원과 실제 군 관여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유르실 이흐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은 지난 2일(수요일)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설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전달한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에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르실 조정장관은 이번 사안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정부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다. 만약 이들 인도네시아 국적자들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제안이나 고액 임금, 비전투 업무, 러시아 국적 취득 등의 감언이슬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분쟁 지역의 군부대로 유도되었다면, 이들은 사기 및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자발적 외국군 복무에 따른 법적 결과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적에 관한 2006년 법률 제12호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전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 군대에 복무한 인도네시아 국적자는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르실 장관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정부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한 개인의 국적 지위는 단순한 언론 보도나 일방적 정보만을 근거로 박탈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역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국방부 정보·홍보국장 리코 시라이트(Rico Sianturi) 준장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공조하여 해당 WNI들의 신원, 국적 지위, 모집 과정, 그리고 실제 군 관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코 준장은 "검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모집 경위나 임무 수행 형태에 대해 섣부른 추측은 자제하고 있다"며, 추후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도 이는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순수한 개인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우크라이나 해외정보국(FISU)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FISU는 인도네시아 국적자 최소 8명이 러시아 군대에 모집된 것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보고서에는 유다 푸트라 프라타마, 하리안토 드위 끄낭사, 에르완다 등 8명의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계 부처 간의 합동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www.zimmoah.com



AIR CONSOLIDATION

Incheon
Los Angeles
Daily
2 times / week
Jaka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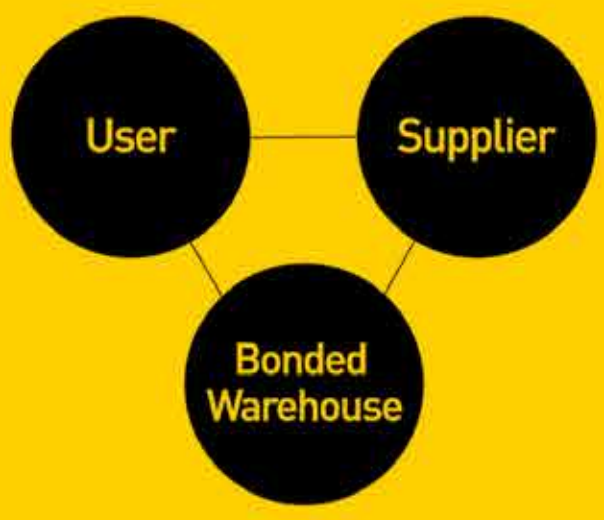
ZIMMOAH

Tel : +(62-21) 2936 5670 (ext 245)
E-mail : AIRcargo@zimmoah.com

LCL CONSOLIDATION



Bonded Warehouse
Biz Model



1. Trading Agency
2. Purchasing Agency
3. Consignment Agency

Tel : +(62-21) 2937 5670 (ext 231)
E-mail : LCLcargo@zimmoah.com

PT. RLC Indonesia

Direct : +(62)816 182 0317
E-mail : krchoi@rlc.co.id

ZIMMOAH

HEAD OFFICE
Kirana Commercial Avenue. Jl. Kirana Avenue 2 Blok D2 No. 10-11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21) 2937 5670 (Hunting) Fax : +(62-21) 2937 5671
E-mail : zimmoah@zimmoah.com www.zimmoah.com

BRANCH OFFICE

SEMARANG	+62 24 351 7198	semarang@zimmoah.com
AIRPORT	+62 21 5591 1853	aircargo@zimmoah.com
HOCHIMINH	+84 28 3776 0107	cargobuscm@cargobuslogitec.com
HANOI	+84 24 3221 6249	cargobushn@cargobuslogitec.com

IATA · AIRLINES PARTNERS · KOREAN AIR · ASIANA AIRLINES · Garuda Indonesia · CHINA AIRLINES · QANTAS · ETIHAD AIRWAYS PARTNER · Emirates

다난타라, 브카시서 3조 루피아 규모 폐기물 에너지화(PSEL) 발전 사업 착공

- 연간 50만 톤 폐기물 처리 및 5만 5,000가구 공급 가능한 친환경 전력 생산
- 2027년 말~2028년 초 완공 목표… 1,000개 녹색 일자리 창출 기대



서부 자바주 브카시(Bekasi)시에서 총 3조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화(PSEL)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공식 착수했다 (26/8/2026). (Tangkapan layar youtube @Pemerintah Kota Bekasi)

인도네시아 투자관리청(BPI Danantara)이 서부 자바주 브카시(Bekasi)시에서 총 3조 루피아 규모의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화(PSEL) 발전 프로젝트 건설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만성적인 도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적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BPI 다난타라는 지난 8월 26일 수요일, 브카시시 반타르게방(Bantargebang) 구 치케팅 우딕(Ciketing Udik) 지역에서 PSEL 발전소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6월 발리 덴파사르에서 시작된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판두 샤흐리르(Pandu Sjahrir) BPI 다난타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착공식에서 "본 프로젝트는 연간 50만 톤 이상의 폐기물, 즉 브카시시 전체 발생량의 약 70%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난타라 측은 이번 PSEL 건설을 통해 최종 매립지(TPA)로 향하는 폐기물 배출량이 80% 이상 감소하고, 매립지 소요 부지 역시 약 90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적 성과도 뚜렷하다. 발전소 운영을 통해 연간 64만 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예정이며, 생산되는 친환경 에너지는 브카시시 내 5만 5,000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유럽연합(EU)의 엄격한 산업배출지침(EU-IED)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폐기물 관리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단계에도 진입하여 인도네시아의 통합 폐기물 관리 솔루션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파트너 선정 과정도 눈길을 끈다. 다난타라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호주, 아일랜드, 독일, 쿠웨이트 등 해외 주요 PSEL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국내 개발 경험자 등 60명 이상의 독립 전문가를 투입해 운영 기술, 법률, 금융, 환경 등 다방면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다난타라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번 3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를 통해 약 1,000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두 CIO는 "폐기물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브카시 PSEL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NTT 나게케오 8,000헥타르 농경지 개간 지시… 식량 안보 강화 총력



프라보워 대통령이 누사틍가라티무르(NTT)주 나게케오군에 8,000헥타르(ha) 규모의 대규모 농경지 개간 계획을 표명했다. 26 Agustus 2026. Foto: BPMI Setpres/Laily Rachev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누사틍가라티무르(NTT)주 나게케오군에 8,000헥타르(ha) 규모의 대규모 농경지 개간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대통령의 이번 지지는 지난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NTT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 대응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뤄졌다. 나게케오군 음바이 및 통구람방 마을에 위치한 제834 영토개발대대(Yon TP) 기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심플리시우스 도나토스 나게케오군수와 멜키 라카레나 NTT 주지사 등 주요 지방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플리시우스 군수와 멜키 주지사는 음바이 지역의 농경지 활용 방안을 보고하며, 완공을 앞둔 람보 댐이 핵심적인 수자원 공급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4,500만 세제곱미터의 저장용량을 갖춘 람보 댐은 현재 공정률이 90%에 달하며, 향후 2~3개월 내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는 이 댐의 완공과 함께 2차 및 3차 관개망이 구축되면 8,0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 개발에 즉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3개월 뒤 수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관개 시설만 갖춰지면 이 프로젝트는 즉시 시작될 수 있다"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총 8,000헥타르의 부지 중 해안가 인근의 약 100헥타르는 양식업 중심지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대규모 식량 농업 지구로 집중 개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통합 농업 프로젝트가 나게케오를 NTT의 새로운 식량 창고로 도약시키는 동시에, 향후 무료 영양급식(MBG) 프로그램 및 메라 푸티흐 협동조합과 연계되어 농어촌 경제를 크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농업 개발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수자원 확보와 환경 복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논의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연구혁신청(BRIN), 국방대학교, 군(TNI), 그리고 국내 공학 대학들을 향해 팔루에섬과 같이 깨끗한 물 확보가 시급한 도서·해안 지역을 위해 독자적인 해수담수화 기술을 개발·보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NTT 지역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산림 복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소한 수목 피복과 불로 토지를 개간하는 구태를 주민 교육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와 BRIN, 고등교육부 및 대학들이 연합하여 '조림 가속화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조림 프로그램에는 묘목장 건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 식재, 토양 수분 흡수력 강화를 위한 '퍼머컬처(permaculture)' 개념 도입 등이 포함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퍼머컬처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4~6년 내에 수자원 저장량이 늘어나고 10년 안에는 황폐화된 토지가 다시 푸르게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나무는 생명의 원천이다. 나무가 없으면 숲이 없고, 숲이 없으면 물이 없으며,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분열을 넘어 단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NTT를 모두 푸르게 바꾸자. 우리의 색은 오직 붉은빛과 흰빛(인도네시아 국기 색)뿐"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KF-21 보라매 후속 사업, 인니 측과 긴밀히 논의 중”

- 공동 개발 단계 완료 이후 협력 형태에 관심 집중… “최종 결정된 바 없어”
- 방산 당국 “일련의 난관은 상호 신뢰 다지는 계기… 양국 방산 협력은 지속될 것”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 KF-21(인도네시아 명칭 IF-X)의 공동 개발 단계 공식 완료를 앞둔 가운데, 양국이 향후 후속 협력 방안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직도입 선호 입장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대사관 측은 구체적인 향후 협력 방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8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차세대 한국 언론인 네트워크(IKJN)’ 워크숍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KF-21 사업의 향후 방향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양국은 다음 단계의 협력 형태에 대해 여전히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며, “따라서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협력 방식 변경과 관련된 정보들은 공식적인 결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발표된 공식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변경’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KF-21의 공동 생산 단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직접 도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와 국방부(Kemenhan)의 입장 표명 등에 대응하여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사관 측은 현재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규모 국방 협력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조기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 납부 지연, 기술 진 관련 논란 등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양국 간의 신뢰를 다지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다양한 어려움을 상호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극복해 낸 것은 매우 훌륭한 본보기”라며 “공동 개발 사업의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KF-21 보라매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손잡고 추진해 온 최초의 4.5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다. 지난 2010년 합의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총개발비만 약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양국 간 핵심 전략 방산 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을 통해 전투기 공동 개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적 혜택을 누려왔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같은 워크숍에 참석한 바흐드 나빌 아크마드 물라첼라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정책전략센터장 역시 양국이 KF-21의 공동 개발 및 협력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바흐드 센터장은 “협력 과정에서 각국의 우선순위 변화 등 여러 역학 관계로 인해 조정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마침내 최종 목표를 달성해 올해 공동 개발을 마쳤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의 국방 협력 기조는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IF-X 생산 사업 협력 및 방산 분야의 지속적인 진전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공동 생산 참여 대신 직도입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양국이 향후 어떠한 형태의 후속 협력 모델을 도출해 낼지 방산 업계와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KPK, 현장 단속(OTT) 이후에도 외국인 대상 갈취 혐의 포착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대규모 현장 단속(OTT) 이후에도 출입국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KPK는 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KPK 메라 푸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입국관리총국 내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와 관련된 공갈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확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디 프라세티오(Budi Prasetyo) KPK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지난 6월 현행범 체포 작전이 단행된 이후에도 출입국 부서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법 금품 수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PK는 혐의가 포착된 복수의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외국인 체류 허가 절차 등 각종 출입국 관련 서비스 승인을 대가로 여전히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KPK는 모든 출입국사무소가 이러한 부패 행위에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디 대변인은 일부 사무소의 경우 이미 금품 수수 관행을 중단했으며, 과거에 수수한 불법 자금을 KPK 수사관들에게 자진해서 제출하거나 반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발리에서 진행된 조치 등에서 압수된 자금은 과거 실제로 수수되었던 금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무이민국 로고 Logo Kementerian Imigrasi dan Pemasyarakatan (Kemenimipas) RI (Foto: Istimewa)

앞서 KPK는 지난 2026년 6월 초,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인 체류 허가 처리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패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격적인 현행범 체포 작전을 감행한 바 있다.

당시 일련의 작전을 통해 당시 이민·교정부 차관이자 전 출입국관리총국장이었던 실미 카림(Silmy Karim)을 포함해 총 8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실미 전 총국장은 한때 행방이 묘연해지기도 했으나 이후 수사관들에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KPK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거두어들인 누적 수수액이 최소 1,455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총국 및 이민·교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자금이 조직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납 메커니즘이 존재했으며, 실미 카림 전 총국장이 재직 당시 매주 1억 루피아 상당의 정기 상납금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KPK는 이들의 주요 공갈 수법이 외국인의 비자 서류 및 체류 허가 승인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신청인 및 서류 대행 대행인들은 법이 정한 공식 수수료 외에 승인을 볼모로 한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K는 사법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과 수뇌부 입건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 실무에서 유사한 부패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전반에 대한 고강도 추가 수사와 제도적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한국·인도네시아의 길잡이
HANIN POST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하원(DPR),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면담… ‘자산몰수법’ 12월 15일까지 통과 약속

부패 척결 및 범죄수익 환수 위한 핵심 입법… 미이행 시 지도부 사퇴 강경 입장 밝혀
시민사회 요구 수용해 일반공청회(RDPU) 통한 의견 수렴 및 입법 과정 참여 보장



국회 부의장은 지난 2026년 8월 27일(목) 국회단지 압둘 무이스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통합사회연대(AMPB)’ 시위대 대표단을 접견했다. (Foto: Dok. DPR RI/ Jaka Karisma)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하원) 지도부가 반부패 입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범죄 관련 자산 몰수에 관한 법률안(RUU)’을 오는 2026년 12월 15일까지 최종 의결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DPR 지도부는 지난 2026년 8월 27일(목) 오전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단지 압둘 무이스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통합사회연대(AMPB)’ 시위대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날 면담에는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DPR 부의장을 비롯해 사안 무스토파(Saan Mustopa), 쿠춘 아흐마드 삼수리잘(Cucun Ahmad Syamsurijal)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AMPB 측은 조정자 수프리요노(별칭 보톡)를 필두로 한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양측은 DPR 지도부와 AMPB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며 입법 약속을 공식화했다. DPR은 합의문을 통해 자산 몰수 법안이 부패 범죄 척결을 강화하고 국가의 범죄 수익 환수를 지원하기 위한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본회의 직후 진행된 면담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방금 본회의에서 범죄 관련 자산 몰수 법안을 늦어도 2026년 12월 15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의록 사본을 AMPB 측에 전달하며 이를 대중에 대한 DPR의 공식적인 기준이자 약속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서 AMPB 대표단은 자산 몰수 법안의 조속한 통과뿐만 아니라,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형 선고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패가 사회 전반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AMPB는 법안 통과가 단순히 속도전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일반공청회(RDPU)를 통해 시민사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스코 부의장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산 몰수 법안 초안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다스코 부의장은 합의된 기한 내 입법 완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DPR 지도부는 제때 이 법안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러분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떠한 우려도 없으며, 만약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한다면 지도부가 사퇴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DPR의 사안 무스토파 부의장 역시 법안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감시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의 의지도 매우 명확하며, 이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라며 “법안이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도네시아 하원의 자산 몰수법 처리 기한 명시와 지도부의 초강경 사퇴 공언은 향후 국가 반부패 정책 및 입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만큼 향후 입법 세부 내용에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YSM

YI SENG MIN & PARTNERS 법률사무소

소송.중재(Litigation.Arbitration)
민사소송.형사소송.파산소송.채무지불의무연기소송.행정소송.
노사분쟁소송.지식재산권소송.중재

기업법무(Corporate)
법률의견서.계약서.담보권설정.정관 개정.청산.철수.자문변호사

관재(Bankruptcy.PKPU)
파산관재.채무지불의무연기관재

투자(Investment)
법률실사.인수.합병.분리.차명투자.지분참여.현지법인설립.
대표사무소개설

부동산(Real Estate)
부동산실사.매매중개.임대차중개

자원 개발(Natural Resource)
광산실사.오일팜농장실사.인수.지분참여

가족법(Family)
상속.부부재산분리.혼인.이혼.입양

지식재산권(IPR)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등록

공증 지원(Notarization Support)
공증 지원. 아포스티유(Apostille) 지원

사용언어(Language) : 한글.Bahasa Indonesia.English

Korea Center Building, 6th Floor, Suite 606,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12950
Tel. : (021)525-5959. 527-2422

대표변호사 이 승 민
YI SENG MIN, SH., MH.
Attorney at Law
MP. : 0816-1911-245
yisngmin@gmail.com

한국 정부, 인도네시아에 '니켈 배터리 인센티브' 촉구… 전기차 생태계 공고화 나서

현대차 · 에코프로 등 대규모 투자 이어져… "현지 고용 창출 및 공급망 융합 기여"
인도네시아 외교부 "한국은 핵심 파트너, 기술 협력 확대 기대"


PT HLI Green Power 공장 전경. Hyundai Motor, LG Energy Solution 합작 공장 (Foto: Dok. HLI)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니켈 기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EV)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양국 간 전기차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엄태호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참사관은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네트워크(IKJN)'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기반 배터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완성차 제조부터 배터리 셀 생산, 니켈 가공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엄 참사관은 니켈 기반 배터리 인센티브 문제가 현재 양국 정부 간 논의되는 핵심 의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니켈 기반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타 유형의 배터리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니켈 배터리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자동차의 치카랑 제조 시설 등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엄 참사관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때 한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대신 현지인을 고용하고 교육해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진출을 넘어 인도네시아 산업과 진정으로 융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차의 투자는 제조 시설에 그치지 않고 LG CNS와의 협력을 통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산업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연쇄적인 투자 유치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 외교부 동남아1과장 역시 양국의 상호 보완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젊은 노동력, 거대한 내수 시장과 한국의 기술·자본·산업 경험이 결합해 섬유·전기를 거쳐 전기차 및 바이오 분야로 협력이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현지 생산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현지부품인증비율(TKDN) 약 80%를 달성한 '코나 일렉트릭'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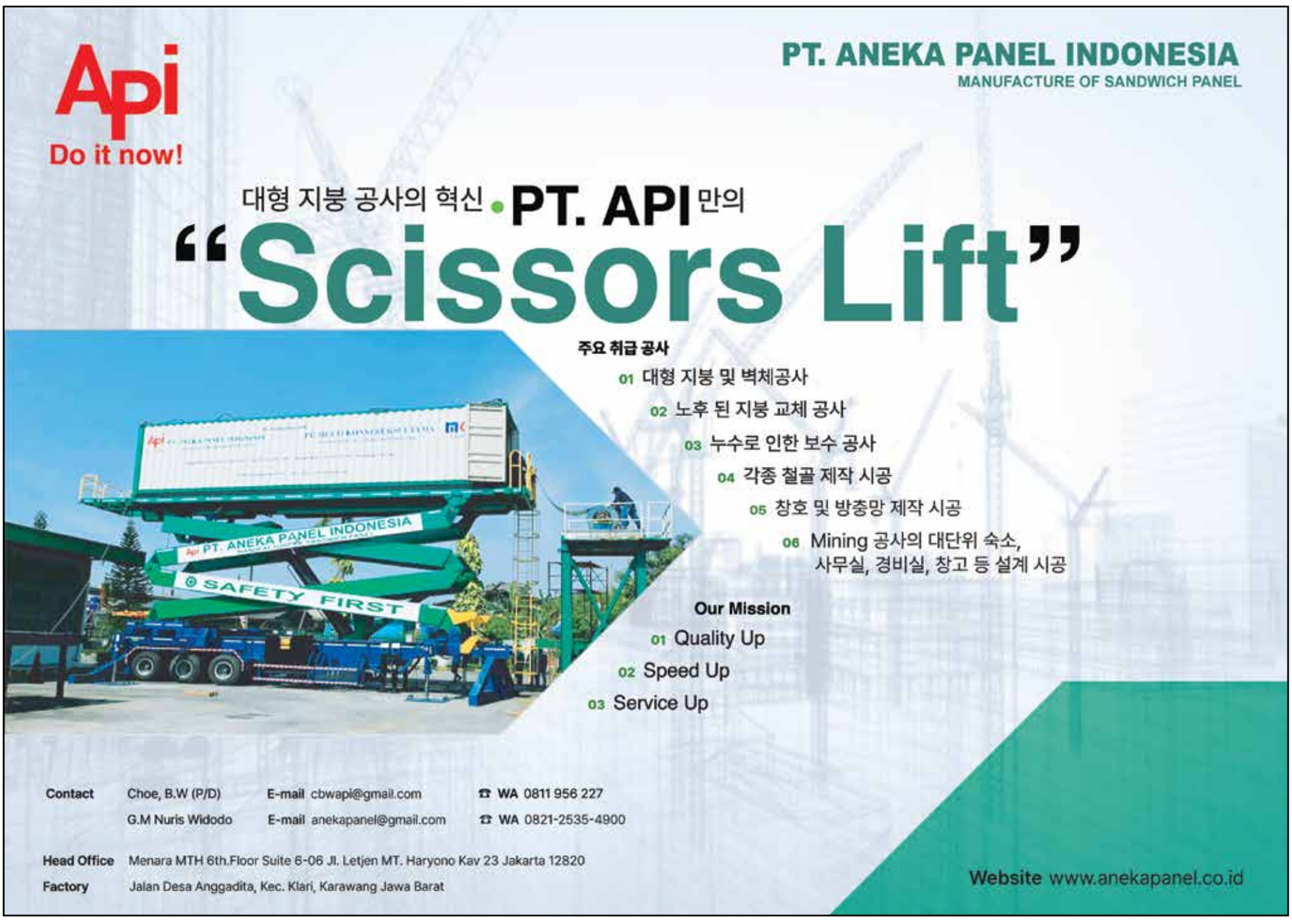
현재 한국은 현대차그룹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에 약 30억 달러를 투입했다. 서부 자바주 치카랑의 차량 제조 시설(HMMI)을 비롯해, 카라왕의 PT HLI그린파워를 통한 배터리 셀 생산(2024년 기준 2,010만 개 생산, 98% 수출) 등 가치사슬(Value Chain)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도 한국을 핵심 전략 파트너로 평가하며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바흐드 나빌 아흐마드 물라첼라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 정책전략센터장은 "한국은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향후 양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약정액이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바흐드 센터장은 탄소 감축과 청정에너지 개발이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미·중 패권 경쟁 등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2026년 7월 누적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수출 4.43% 증가로 성장세 지속

- 비석유·가스 부문 흑자(224억 5,000만 달러)가 전체 무역수지 견인
- 1~7월 누적 수출 1,670억 3,000만 달러… 가공 제조업 수출 7.16% 증가
- 최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인도 순… 수입은 원자재·부자재 중심으로 19.94% 증가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경제가 전월의 일시적인 무역적자 충격을 딛고 견조한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완만한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이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인도네시아의 상품 무역수지는 1억 2,000만 달러(0.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월인 6월에 4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7월 단기 흑자는 31억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비석유·가스 부문 무역수지가 전체적인 적자 압박을 상쇄하며 강력하게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상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총 3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비석유·가스 부문이 흑자 주도… 석유·가스 부문은 적자 지속

아텡 하르토노(Ateng Hartono) BPS 유통·서비스 통계 담당 차장은 지난 화요일(2026년 9월 1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공식 통계 브리핑을 통해, 올해 첫 7개월 동안의 무역수지 흑자는 주력 산업의 플러스 성장이 지속된 수출 실적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텡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흑자는 비석유·가스 품목의 뛰어난 무역 실적(224억 5,000만 달러 흑자)이 전체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에너지 자급과 소비 구조의 한계로 인해 석유·가스 품목 무역은 동기간 187억 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대조를 보였다.

◇ 1~7월 누적 수출 1,670억 달러… 가공 제조업 성장이 핵심 동력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의 누적 수출액은 총 1,67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는 주로 전년 동기 대비 5.21% 증가하여 1,60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비석유·가스 부문이 주도했다. 부문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가공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한 1,37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압도적인 비중과 규모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원자재 부가가치 제고(다운스트림) 정책이 가공 제조업 중심의 수출 확대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의 3대 주요 비석유·가스 수출 대상국은 ▲중국(406억 2,000만 달러, 점유율 25.39%) ▲미국(191억 9,000만 달러, 점유율 11.99%) ▲인도(110억 달러, 점유율 6.87%) 순으로 집계되어, 거대 경제 대국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견고한 교역 관계를 재확인했다.

◇ 수입액 19.94% 증가… 원자재 및 자본재 중심의 산업 수요 반영

수출 증가세와 함께 내수 및 산업 생산 회복을 반영하듯 수입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6년 1월~7월 누적 수입액은 1,63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94% 급증했다.

이 같은 수입 확대는 비석유·가스 수입이 16.78% 증가한 1,375억 6,000만 달러, 석유·가스 수입이 무려 40.24% 급증한 25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기인한다.

용도별 수입 구성을 보면 국내 제조업의 생산 활동 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원자재·부자재 수입이 20.42% 증가한 1,167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텡 차관보는 자본재 수입이 20% 증가한 324억 6,000만 달러, 소비재 수입은 16.03% 증가한 141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비석유·가스 수입국으로는 중국이 582억 9,000만 달러(점유율 42.38%)를 기록해 부동의 1위를 지켰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이 77억 1,000만 달러(5.61%), 호주가 64억 7,000만 달러(4.70%)를 기록했다.



중앙통계청(BPS)은 2026년 7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Sumber Foto: Tangkapan Layar YouTube @BPSStatistics)

◇ 품목별 명암: 동·식물성 유지·광물성 연료 흑자 견인 vs 기계류·전기기기 적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비석유·가스 부문의 무역 흑자는 국가 경제의 핵심 전략 품목들로부터 창출되었다.

아텡 차관보의 설명에 따르면, 흑자는 주로 ▲동·식물성 유지(HS 15, 209억 6,000만 달러)가 가장 크게 견인했으며, 이어 ▲광물성 연료(HS 27, 163억 9,000만 달러) ▲철강(HS 72, 103억 2,000만 달러) ▲니켈 및 그 제품(70억 8,000만 달러) ▲신발류(38억 4,000만 달러) 순으로 막대한 흑자액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자원 부국으로서의 저력과 니켈 등 2차 전지 핵심 광물 가공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다.

반면, 당월 기준(2026년 7월) 석유·가스 무역수지는 석유화학제품 및 원유 수입 확대로 인해 29억 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1월~7월 누적 기준 비석유·가스 부문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품목은 산업용 자본재인 기계 및 기계류(HS 84)로 187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HS 85)이 97억 3,000만 달러,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이 55억 1,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국내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첨단 기계 및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과제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서도 주력 제조업 및 가공품 수출을 통해 37억 달러 규모의 누적 흑자를 달성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이나,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재 및 기계류의 국산화율 제고와 에너지 부문의 구조적 적자 개선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PT. BIC JAYA INDONESIA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www.bicjayaindonesia.com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노동부 장관, "아세안 노동 프레임워크는 근로자와 기업 위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 노동장관회의(ALMM) (26/8/2026). (Foto: HO-Kemnaker RI)

야시엘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이 아세안(ASEAN) 노동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시엘리 장관은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 노동장관회의(ALMM)에 참석해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경쟁력·회복력·민첩성 증진에 관한 아세안 선언'의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세안 지역이 이미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성패는 이러한 공약들이 서류상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자카르타에서 발표된 성명에서 야시엘리 장관은 "현시점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의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근로자와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4대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아세안 선언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급변하는 산업 및 노동 시장의 수요에 발맞추어 기술 개발을 연계(Link and Match)하는 방침을 추진 중이다. 대졸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과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MagangHub)을 강화하여 노동력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로는 근로자와 기업의 경제적 회복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실직 근로자를 위해 현금 지원, 재훈련 기회, 취업 알선을 아우르는 고용보험 프로그램(JKP)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는 맞춤형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포용적 노동 시장의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장애인들이 노동을 통해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용 직업 훈련원과 고용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보조공학기기 및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에게 동등한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훈련 기관 및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통합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LMIS)'의 구축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이 같은 첨단 기술과 정보 시스템이 향후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아세안 노동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선도적인 노동 정책 이행 사례가 공유됨에 따라, 향후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실질적인 노동 협력과 정책 고도화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가야성
Ga Ya Sung
중화 요리 전문점
Since 1997
New!
자연을 마시다,
리얼 코코넛!
지금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개 구매 시
45K
2개 구매 시
더~욱 저렴하게!
75K
100% REAL COCONUT
시원하게! 건강하게! 코코넛 한 잔의 힐링!
100% 자연 그대로
수분 가득 수분 보충
저칼로리 건강한 선택
시원하고 상쾌하게!
예약 문의
081295094658
지금이 기회!
한정 기간 특별 가격 놓치지 마세요!
COCONUT
Fresh & Natural
Ga Ya Sung | Grand Wijaya Center Blok F No. 48 | Jakarta Selatan

인도네시아 하원, '자산몰수법안' 2026년 12월 최종 통과 확정… 부패와의 전면전 가속화

남은 8주의 유효 회기 집중 활용… 공청회 · 실무회의 거쳐 연말 본회의 상정
하비브 위원장 "대다수 국민 강력 지지 속 철저하고 신속한 입법 완수할 것"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이 국가적 반부패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의 입법 완료 시점을 2026년 12월로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정계와 시민사회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동 법안의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자산 환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인권·법률·안보 담당)는 지난 화요일(2026년 8월 25일), 자산몰수법안 심의 과정을 대폭 가속화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6년 12월까지는 모든 입법 절차를 완수할 방침이라고 공식 확언했다. 이날 발표는 제3위원회를 이끄는 하비부록만(Habiburokhman) 위원장을 통해 직접 전달됐다.

하비부록만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위원회는 자산몰수법안 제정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6년 12월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인권·법률·안보 담당) Ketua Komisi Ⅲ DPR RI Habiburokhman, (FOTO/dpr.go.id)

남은 실질 유효 기간 8주… 치밀한 입법 로드맵 가동

하원 제3위원회는 법안 심의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회기의 유효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기 휴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한 실질적 유효 기간은 약 8주 가량으로 추산된다.

제3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8주간의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RDPU)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 및 조정 ▲정부 측과의 실무 회의 ▲쟁점목록(DIM) 심층 논의 ▲제1차 심의 의결 등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6년 12월 본회의에서 2차 심의 의결, 즉 최종 입법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자산몰수법안이 최종 승인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

하원은 그동안 자산몰수법안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비브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하원은 이미 35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3차례의 지방 현장 시찰을 수행했다. 아울러 수십 개에 이르는 주요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서면 의견을 공식 접수하는 등 다각도로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다만, 입법 시한이 촉박해짐에 따라 향후 의견 수렴 방식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하비브 위원장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히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단체가 있다면, 대면 방식 대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대중의 의견 분포가 이미 다각도로 세분화되고 충분히 분석되어 있어, 여론 수렴 및 반영 노력이 사실상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적 지지와 면밀한 입법의 조화 추구

하비부록만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자산몰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은 법안이 속도만 좇기보다는 부실 조항 없이 매우 면밀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원이 설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형식적 논의의 지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이 지닌 국가적 중대성을 감안하여 2026년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제정되도록 완결 짓는 것이다.

자산몰수법안이 예고대로 2026년 12월에 최종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사범들의 은닉 자산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무기를 쥐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은 8주간 하원의 입법 행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인도네시아 정부, 2026년 전국 온라인 쇼핑의 날(Harbolnas) 거래액 40조 루피아 돌파 목표 설정

- 전년 대비 10% 상향 조정된 40조 루피아 목표… 4분기 경제 성장률 6% 견인 기대
- AI 알고리즘 및 비디오 커머스 급성장 속, 현지 중소기업(UMKM)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상품 판매를 넘어 숙박·교통 등 서비스 부문으로 행사 외연 확장… 범국가적 캠페인 도모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개최되는 전국 온라인 쇼핑의 날(Harbolnas)의 총거래액 목표를 40조 루피아로 전격 설정했다. (Sumber Foto: Dok. Kemenko Perekonomian RI)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26년 개최되는 전국 온라인 쇼핑의 날(Harbolnas, 이하 하르볼나스)의 총거래액 목표를 40조 루피아로 전격 설정했다. 이는 36조 4,000억 루피아의 실적을 기록했던 2025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국가 디지털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발판 삼아 4분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경제 성장률 달성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7일(목) 자카르타 무역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6 하르볼나스로 가는 길(Road to Harbolnas 2026)' 출범식 개회사를 통해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제14회를 맞이하는 2026년 하르볼나스는 오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려 4분기 국가 경제에 중대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르볼나스를 통한 거래액 증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지침에 발맞추어 2026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인 6% 선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는 다가오는 2027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6%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대통령 연설 지침에 따르면 이번 4분기 성장률 목표는 6%를 향하거나 이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2027년 6%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되기 때문에 4분기 경제 부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경제 규모 1,000억 달러 임박… 비디오 커머스와 AI가 견인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거래 시장은 오프라인 부문이 전체의 3분의 2, 전자상거래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두 영역 간의 융합과 상호작용은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26년 기준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급성장의 배경에는 비디오 커머스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전면적인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활성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는 연간 26%라는 가파른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1억 8,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기반으로 한 비디오 커머스 거래량은 90% 가까이 급증하여 26억 건에 달했으며, 라이브 방송을 활용한 판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완전히 정착했다. 현재 온라인 판매자 수는 약 80만 명에 이른다.

또한, 전자상거래 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도입은 소비자의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제품 제안을 촉진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이러한 기술 수용의 모멘텀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산업계와 현지 영세·중소기업(UMKM)이 보다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 전통 상품에서 숙박·교통 서비스까지… 외연 확장 나선 하르볼나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2026년 하르볼나스가 정부와 지자체, 기업인, 디지털 플랫폼, 협회, 언론 및 대중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매 유통업이 상류 산업과 최종 소비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류 산업의 발전이 소비자의 행동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르볼나스와 같은 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2025년 하르볼나스는 전년(31조 2,000억 루피아) 대비 17% 증가한 36조 4,000억 루피아의 거래액을 기록했으며, 이 중 현지 제품이 약 45%(16조 6,000억 루피아)를 차지했다. 가장 수요가 높았던 현지 제품 카테고리는 패션 및 스포츠용품, 뷰티·케어, 식음료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년 행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상품 프로모션을 넘어 숙박 및 교통 티켓 등 다양한 서비스 용역까지 포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여행사(OTA), 라이드헤일링(차량 호출 서비스), 소셜 커머스 및 각종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의 대거 참여가 예상된다. 부디 장관은 이러한 범위 확장이 '전자시스템을 통한 상업 활동 운영에 관한 2026년 무역부 장관령 제19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수출 지원 기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자국산 제품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 각국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만큼,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UMKM Bisa Ekspor)' 및 대학생 대상 수출 교육 프로그램인 '캠퍼스프러너(Kampuspreneur)' 등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UMKM) 보호와 육성의 병행 강조

한편, 국가 디지털 전환과 대규모 할인 행사의 이면에 국내 영세·중소기업(UMKM)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만 압두라흐만(Maman Abdurrahman) 중소기업소상공인부 장관은 하르볼나스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대거 확보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도,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세심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만 장관은 "본질적으로 우리는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수혜가 대기업이나 해외 자본에 편중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전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 속에서 사상 최초로 40조 루피아 고지 정복에 도전하는 2026년 하르볼나스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영토를 얼마나 확장하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 칼리만탄 3개 주 산불 발화 지점 증가 발표… 가시거리 1~2km 불과



베르톤 SP 판자이탄(Berton SP Panjaitan) BNPB 재난데이터정보통신센터장 직무대행 (31/8/2026). (Foto: YouTube BNPB)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이 칼리만탄 일부 지역의 산림 및 토지 화재(산불) 현황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칼리만탄, 중부칼리만탄, 남칼리만탄 등 3개 주에서 화재 발생 지점(fire spot)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짙은 연무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가시거리가 1~2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톤 SP 판자이탄(Berton SP Panjaitan) BNPB 재난데이터정보통신센터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이들 칼리만탄 3개 주에서 발화 지점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시거리가 약 1~2km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반면 수마트라 일부 지역의 상황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BNPB에 따르면 리아우, 남수마트라, 잠비 지역은 전반적으로 발화 지점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남수마트라의 경우 열점(hot spot)이 209개소 늘어난 총 1,013개소로 집계되며 예외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베르톤 직무대행은 "리아우와 잠비에서는 열점이 크게 감소했다"며 "가시거리의 경우 리아우와 남수마트라가 4~5km, 잠비는 약 7km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기후지구물리학청(BMKG)에 따르면, 서칼리만탄·중부칼리만탄·남칼리만탄 지역의 대기 오염물질 확산도는 1일까지 매우 짙은 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르톤 직무대행은 "이들 지역은 연기가 극심하게 자욱한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8월 31일 기준 주요 지역별 산불 발생 및 대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서칼리만탄: 열점 7,377개소(3,553개소 증가) / 발화점 104개소(88개소 증가) / 가시거리 1km 미만
- 중부칼리만탄: 열점 5,244개소(147개소 감소) / 발화점 72개소(16개소 증가) / 가시거리 1km 미만
- 남칼리만탄: 열점 504개소(405개소 감소) / 발화점 55개소(3개소 증가) / 가시거리 2km 미만
- 리아우: 열점 62개소(202개소 감소) / 발화점 12개소(2개소 감소) / 가시거리 4~5km
- 남수마트라: 열점 1,013개소(209개소 증가) / 발화점 11개소(7개소 감소) / 가시거리 5km 미만
- 잠비: 열점 49개소(86개소 감소) / 발화점 4개소 / 가시거리 6~7km

BNPB는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베르톤 직무대행은 "국민들은 환경부가 제공하는 대기오염표준지수(ISPU)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제9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아리아리
한국
2026.9.12(토) ~ 9.13(일) 롯데에비뉴
전시 : 9.12(토) 오후 2시~13(일) 메인아트리움(1F)
공연 : 9.12(토) 오후 2시 30분 아이스팰리스홀(4F)
재 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Korean Culture & Art Association in Indonesia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가루다항공, 수하물 규정 전면 개편… 2026년 9월 1일부로 '개수 기준' 도입

- 기존 '무게 총합 산정 방식' 폐지… 개당 최대 중량 및 허용 개수 엄격 적용
- 이코노미 국제선 최대 23kg 2개 허용… 1개로 합산 위탁 및 초과분 기내 반입 불가
- 닐 레이몬드 밀스 이사 "고객의 명확한 여행 계획 수립 돕기 위한 조치"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여행 준비 과정에서 수하물 규정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국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이 기존의 수하물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며,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2026년 9월 1일(화)부터 기존의 '무게 기준(Weight Concept)' 수하물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개수 기준(Piece Concept)'을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향후 승객들은 위탁수하물의 전체 총무게뿐만 아니라 가방의 개수와 각 수하물별 최대 중량 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추가 비용 발생을 피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된 개수 기준 시스템에 따르면, 승객의 전자항공권(e-ticket)에는 무료로 위탁 가능한 수하물의 개수와 각 가방당 허용되는 최대 중량이 명시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하물의 물리적 분할과 합산에 대한 규제다. 예를 들어, 전자항공권에 '최대 23kg 1개(1 piece)'로 기재된 경우, 승객은 총무게가 23kg 이내라 할더라도 가방 1개와 상자 1개를 나누어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허용된 1개의 수하물 안에 짐을 꾸려야 한다.

반대로, 허용량이 '각각 최대 23kg 2개(2 pieces)'로 제공되는 여정의 경우, 승객은 개당 23kg을 넘지 않는 가방 2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허용량이 46kg에 달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가방에 46kg으로 합쳐서 위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클래스별 구체적인 허용량을 살펴보면,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은 최대 23kg의 수하물 1개를 위탁할 수 있다. 국제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의 경우 개당 최대 23kg의 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위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어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노선 및 구체적인 항공권 규정에 따라 개당 최대 32kg 한도의 수하물을 최대 2개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책정됐다.

만약 위탁하려는 수하물 중 하나의 무게가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각 수하물이 지정된 개별 중량 한도 내에 머무르는 전제하에 다른 가방으로 짐을 나누어 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초과 수하물 발생 시 이를 모두 기내 수하물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7kg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규격 역시 최대 56 x 36 x 23cm,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므로 승객들의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수하물 규정 혁신을 주도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닐 레이몬드 밀스(Neil Raymond Mills) 혁신 담당 이사는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과 기대를 밝혔다. 밀스 이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고객이 여행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위탁 가능한 수하물의 개수와 각 수하물의 무게 제한이 얼마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루다항공 여행 이미지 (Foto: Dok. Garuda Indonesia)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측은 이번에 발표된 신규 수하물 정책이 2026년 9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발권된 항공권과, 해당 일자 이후 출발하는 모든 여정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규정은 기본적으로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직접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밀스 이사는 복잡한 여정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예외 사항도 언급했다. 그는 "공동운항(코드셰어), 인터라인, 그리고 타 항공사와 연계된 환승편 등 2개 이상의 항공사가 관련된 여정의 경우에는 각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수하물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각별한 확인을 당부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규정 변경이 글로벌 항공 시장의 표준적인 수하물 정책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을 이용해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객들은 공항에서의 혼잡과 예기치 못한 추가 요금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권 시점부터 전자항공권에 기재된 수하물 규격을 꼼꼼히 대조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시나붕산 분화 여파로 수카르노-하타~쿠알라나무 노선 항공편 15편 결항… 쿠알라나무 공항 일시 폐쇄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에 위치한 시나붕산의 대규모 분화 여파로 반텐주 탕그랑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델리세르당의 쿠알라나무 국제공항을 잇는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쿠알라나무 공항은 화산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시 폐쇄된 상태다.

2일 인도네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산 분화로 인해 양 공항을 오가는 총 15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추가로 14편의 항공편이 지연 운항했다. 이 밖에도 쿠알라나무 공항을 드나드는 항공편들이 지연되거나 대체 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기준 수카르노-하타 공항과 쿠알라나무 공항 간 운항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도착 20편, 출발 21편 등 총 41편으로, 당시 예상 이용객 수는 약 5,350명에 달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해 상당수의 항공 스케줄이 전면 중단됐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유디스티아완 통신·법무 부국장은 전날(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시나붕산 분화의 여파가 수카르노-하타 공항 노선을 포함한 쿠알라나무 기·종점 항공편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국은 항공사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항공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항 운영과 여객 서비스가 최대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조치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쿠알라나무 공항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각 항공사를 통해 최신 운항 현황과 스케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메단공항 Bandara Kualanamu, Medan (Foto: Istimewa)

유디스티아완 부국장은 "이용객들께서는 탑승 예정인 항공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국 또한 향후 기상 및 화산 활동 상황 변화에 발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인도네시아 산불 확산에 10개국, 헬리콥터 36대 및 공중 자산 총동원

교통부, 특별 허가 통해 8개국 헬기 36대 신속 투입
일본 ·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도 진화 작전 가동
칼리만탄 등 재난 피해 지역 중심으로 공중 진화 및 인공강우 작업 총력



일본 헬리콥터가 칼리만탄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Foto: X/@ModJapan_en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규모 산불 및 산림·토지 화재(karhutla) 진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현재 최소 10개국이 공중 전력 지원, 진화 작전 공조, 인공강우(구름 파종) 작업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재난 대응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국제적 지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칼리만탄 지역을 비롯한 주요 피해 지역의 산불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작전을 대폭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대응의 핵심은 인도네시아 교통부(Kemenhub)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과 특별 허가를 통해 유치된 외국 국적 헬리콥터 36대의 투입이다.

◆ 교통부, 신속 인허가로 8개국 36대 헬기 투입 뒷받침

루크만 F. 라이사(Lukman F. Laisa) 인도네시아 교통부 민간항공국장은 본국 정부가 외국 등록 항공기의 국내 운항과 관련해 총 35건의 특별 허가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허가는 8개국에 소재한 11개의 항공운항증명(AOC) 보유 업에 발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불 진화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외국 국적 헬리콥터는 총 36대에 달한다.

루크만 국장이 자카르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산불 진화 지원에 동참한 항공기 국적국은 호주,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라오스, 베트남, 캐나다 등 8개국이다.

이와 함께 특별 허가를 취득한 11개 AOC 보유 운항사는 ▲에르사 이스턴 에비에이션(Ersa Eastern Aviation) ▲제네사 디르간타라(Genesa Dirgantara) ▲팔콘 패트리어트 우타마(Falcon Patriot Utama) ▲페가수스 에어 서비스(Pegasus Air Service) ▲화이트스키 에비에이션(Whitesky Aviation) ▲스마트 차크라와라 에비에이션(Smart Cakrawala Aviation) ▲엘랑 누산타라 에어(Elang Nusantara Air) ▲인탄 앙카사 에어 서비스(Intan Angkasa Air Service) ▲볼타 파시픽 아비아시(Volta Pasifik Aviasi) ▲다비 에어 누산타라(Dabi Air Nusantara) ▲데라조나 에어 서비스(Derazona Air Service) 등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 작전 지원 및 철저한 항공 안전 감독을 병행하며 외국 등록 항공기의 원활한 현장 운용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 유동적인 재난 상황 대응 위한 '기동성' 확보

산불 현장의 특성상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통부는 특별 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재난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을 마련했다. 운항사들은 이러한 재배치 작전 수행 시 민간항공국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기만 하면 되며, 이는 '외국 항공기 운항 허가에 관한 민간항공국장령 제KP. 9/2021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적 인허가 지원 외에도, 교통부 민간항공국 산하 감항 및 항공기운항과는 엄격한 감항성(Airworthiness) 감독과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산불 진화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항공기 개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기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필수 인증 절차와 기술적 요건이 완벽히 충족된 후, 실제 비행 작전은 각 운항사가 보유한 항공운항증명(AOC)의 규정 및 인가 범위 안에서 운항사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수행된다.

◆ 일본·말레이시아 등 인접국도 가세… 10개국 연대 완성

앞서 언급된 8개국 외에도 주요 우방국들의 직접적인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의 극심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고성능 CH-4 헬리콥터 3대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인접국인 말레이시아는 양국 국경 인근 지역에서 효율적인 인공강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국 항공기의 인도네시아 영공 진입을 전격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의 이번 산불 재난 극복을 위해 연대하고 지원 손길을 내민 국가는 호주,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라오스, 베트남,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확보된 막강한 공중 자산은 엄격한 항공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화 지원이 가장 시급한 현장에 즉각 투입되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coway
TALK
한인기업 특별 상담
0811-9294-114

인도네시아 산불 연무, 국경 넘어 필리핀 강타… 마닐라 대기질 '위험' 초과로 비상

- 케손시티 등 주요 도시 대기질지수(AQI) '매우 건강에 해로움~위험' 수준 기록
- 케손시티 공립학교 대면 수업 일시 중단… 취약계층 보호령 및 마스크 착용 권고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산불 핫스폿 500여 개 감지… 비정상적 풍향 타고 적도 넘어 확산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산림 및 토지 화재(kebakaran hutan dan lahan 이하 karhutla 카르훗라)로 발생한 고농도 연무가 국경을 넘어 필리핀 영토까지 확산되면서 메트로 마닐라(국가수도권)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대기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수준을 초과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내 대규모 산불이 단순한 자국 내 환경 재난을 넘어 인접국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초국경적 환경 위기로 번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언론 매체인 ABS-CBN, Inquirer.net, Phil Star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화) 기준 메트로 마닐라 일대의 공기질이 '건강에 매우 해로움' 내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번 대기오염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파라냐케, 케손시티, 라스피냐스 등지에서는 대기질지수(AQI)가 임계치를 크게 웃돌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 마닐라 연무 피해 22 September 2023. (AFP/JAM STA ROSA)

◆ 공립학교 대면 수업 전면 중단… 민간 기관에도 원격 전환 권고

대기 질 악화가 가시화되자 필리핀 지방자치 당국은 즉각적인 학생 보호 조치에 돌입했다. 케손시티 시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 하루 동안 공립학교의 대면 수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립 교육기관의 유아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을 비롯해 대안학습 체계 수업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도시 재난 대응 당국은 케손시티 내 설치된 68개의 대기 모니터링 센서망이 측정 결과 AQI 수준을 "매우 건강에 해로움"에서 "급성으로 매우 건강에 해로움" 단계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케손시티 시정부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 기관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수업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어린이, 노인, 임산부, 기존 폐·심장질환 보유자 등 호흡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외 활동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실내에 머물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PM2.5 수치 급등… 파라냐케 AQI 296 기록 등 최악의 공기질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환경관리국(DENR-NCR)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메트로 마닐라 일부 도시의 대기질은 수용 한계를 한참 넘어섰다. 이번 연무 사태의 주원인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대형 산불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수도권 내 DENR-EMB 측정 자료에 따르면,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인 'PM2.5' 농도가 전 지역에서 급등했다. PM2.5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인간의 호흡기계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주요 지역별 AQI 수치를 살펴보면, 파라냐케가 296을 기록해 가장 심각한 오염도를 보였으며, 이어 케손시티 241, 라스피냐스 237, 마닐라 231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 환경 기준상 "급성으로 건강에 해로움(Acutely Unhealthy)" 또는 "건강에 매우 위험함(Very Unhealthy)" 범주에 해당한다.

DENR-EMB는 AQI가 201에서 300 사이에 이르면 모든 일반 시민의 건강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야외 활동을 즉각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메트로 마닐라의 여타 관측 지역 역시 심장 및 폐 질환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151~200 수준의 '매우 건강에 해로움' 단계를 기록했다.

◆ 인도네시아 산불 핫스폿 500여 개… 비정상적 풍향이 초래한 초국경 재난

이처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네시아의 산불 연기가 필리핀까지 도달한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상학적 이상 현상을 지목했다. 필리핀대학교 환경과학 및 기상학 연구소의 대기물리학자이자 기상학 교수인 게리 바그타사(Gerry Bagtasa) 박사는 최근 위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근 며칠간 칼리만탄 서부와 남부 지역에 수많은 활성 화재 지점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바그타사 박사는 인도네시아 섬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기가 비정상적인 풍향을 타고 북상해 적도를 넘어 필리핀 영공까지 유입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6년 8월 31일 오후 9시 18분(WIB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신뢰도 높은(high confidence) 화재 핫스폿이 총 535개소 감지됐다. 특히 서칼리만탄, 중칼리만탄, 남칼리만탄, 동칼리만탄을 비롯해 남수마트라, 리아우, 잠비 등 주요 산불 취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 국가의 산림 관리 실패와 산불 통제 미비가 인접 국가의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초국경적 환경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대규모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공동의 안보 체계와 외교적 공조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고객의 평가가
KPCM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



WALLING & ACP



INTERIOR



ROOFING



CONSTRUCTION



FLOORING



WAREHOUSE



EPOXY & CONCRETE POLISHING



PANEL



MECHANICAL & ELECTRICAL

산업단지 개발, 공장 건축, 인테리어

공장 유지. 보수 관리 전문

SAMSUNG CJ HYUNDAI LOTTE Mart
ZINUS LocknLock LG EMSONIC
PT. Strawland ZIMMOAH
PT. PUNGKOOK INDONESIA OME PT. SERIM INDONESIA

KPCM

+62 811-9966-903 (Mr Han)
kpcidhan@gmail.com
kpcm.co.id

자카르타 주지사 “7~8월 두 달간 화재 457건 발생”… 서부·동부 지역 집중

- 전기 누전 및 시민 부주의가 주원인… 통(RW) 단위 소화기 비치 강조
- 칼리바루 · 셈페르 등 가뭄 피해 발생, 급수차 29대 투입해 식수 지원

DKI 자카르타 주정부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자카르타 전역에서 총 45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부 자카르타와 동부 자카르타 지역에 화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는 지난 수요일(2026년 9월 2일) 중부 자카르타 국립기념탑(Monas) 일대에서 열린 건기 대비 태세 점검 행사, '자카르타 수호 결의대회'에서 프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DKI 자카르타 주지사에 의해 공개됐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지방재난관리청(BPBD)의 보고를 인용해 “7~8월 두 달간 자카르타에서 총 45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서부 자카르타와 동부 자카르타 순으로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부의 탐보라(Tambora) 구와 동부의 차쿵(Cakung) 구”라고 지적하며, 특히 8월 한 달 동안 이 두 지역에서만 약 240건의 화재가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번 자카르타 화재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전기 누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시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프라모노 주지사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를 철저히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각 통(RW) 단위로 소화기(APAR)를 의무 구비하도록 요청했으며, 현재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모든 통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화재 사고 외에도 길어지는 건기로 인한 가뭄 피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0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총 29대의 급수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칼리바루(Kalibaru)와 셈페르(Semper) 등 2개 동(Kelurahan) 지역에서는 이미 가뭄 피해가 발생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 Gubernur Jakarta Pramono Anung (Foto: Istimewa Pemprov DKI Jakarta)

프라모노 주지사는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재난 발생 이후의 수습에 그치지 말고, 건기 동안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완화 조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들을 향해 일상에서의 물 절약 실천, 거주 지역 내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화재 위험 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관계 당국 신고 등을 거듭 당부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재난 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자카르타를 지키자는 정신을 모두의 공동 운동으로 발전시켜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NTT 지진 11일 차: 사망자 103명·부상자 1,666명으로 집계

- 여진 이어지며 이주민 18만 명 넘어… 망가라이 지역 피해 가장 커 -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이 NTT주 강진 발생 이후 피해 집계 현황을 새롭게 발표했다. 지진 발생 11일 차인 지난 25일 오후 4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03명, 부상자는 1,666명으로 집계됐다.

BNPB에 따르면 전날 대비 사망자는 3명 늘어나 103명이 되었으며, 부상자는 63명이 추가되어 총 1,666명을 기록했다.

BNPB 데이터정보홍보센터의 베르톤 SP 판자이탄(Berton SP Panjaitan) 직무대행은 화요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사망자 수는 망가라이(Manggarai)군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망가라이(Manggarai Timur)군이 34명, 나게케오(Nagekeo)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사망자의 성별 통계는 여성이 55%, 남성이 4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노인층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인 37%, 아동 및 청소년 12%, 유아 및 영아가 그 뒤를 이었다.

부상자의 경우 동망가라이 지역에서 중상 239명, 경상 404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망가라이 지역에서는 중상 58명, 경상 47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리에서 베르톤 직무대행은 지진 피해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한편, 대피소에 머무는 이주민 수도 4,804명이 늘어나 총 185,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민들은 망가라이, 나게케오, 동망가라이, 서망가라이, 시카(Sika), 엔데(Ende), 은가다(Ngada) 등지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주민들이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무는 주된 이유는 지속되는 여진 때문이다. 특히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붕괴 우려와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의 자료를 인용한 BNPB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7.7의 본진 이후 여진 활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화요일까지 기록된 여진은 총 7,029회에 달하며, 이 가운데 141회는 지난 24일 하루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난방지청(BNPB), NTT주 강진 구조활동

BNPB는 본진 발생 후 3주에서 4주 동안은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주하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환자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원"

미르 한의원
MI-REU CLINIC
신속한 효과 • 세심한 진료

■ 진료과목
– 목,허리통증및 디스크
– 어깨,무릎,팔,다리 관절및 근육통
– 소화기,호흡기,심혈관 질환
– 성장탕,총명탕(수험생)
– 허약체질,피로회복,면역강화
– 갱년기,자궁근종,갑상선,일체냉증
– 화병,우울증,공황장애

진료시간
월–금 9:30~6시
토요일 10:30~4시
점심 : 12시~1시
일요일,공휴일 휴무

085694537974
INDO-TCM
미르한의원
(Mireu-tcm)
TALK
Mireu-tcm

Grand Wijaya Centre Blok C 37 Lantai 1
Jl. Wijaya II, Kel. Pulo, Kec.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8월 27일 자카르타 대규모 시위에서 각양각색의 목소리 다시보기

- 반부패법안 신속 처리 촉구부터 현 정부 정책 지지까지 단체별 요구 엇갈려
- 자산몰수법 제정 및 부패 척결 목소리 높지만, 일부 단체는 정부 주요 사업 지지 표명도

지난 2026년 8월 27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국회(DPR/MPR RI) 의사당 앞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 단체와 대학생 조직들의 대규모 집회로 뜨거웠다. 이날 시위에는 통합 시민 연대(AMPB), 프라보워 대통령 프로그램 수호 마두라 자원봉사단(RMP4), 데폭 통합 시민 연대(AMDB), 국민규탄운동연대(GERAM)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반부패와 민생 안정을 부르짖었으나, 세부적인 요구 조건과 정부를 향한 시각에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반부패와 지역 비리 규탄 앞장선 AMPB와 AMDB

중부 자바주 파티(Pati)군 출신들로 구성된 통합 시민 연대(AMPB)는 국회를 향해 '범죄수익(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의 신속한 제정과 부패 사범에 대한 사형제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파티군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 그중에서도 교통부 철도총국(DJKA) 비리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수데워(Sudewo) 파티 군수 사건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액은 최대 42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집회 후원금 모금 계좌가 동결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데폭 통합 시민 연대(AMDB)' 역시 AMPB와 발을 맞춰 자산몰수법안 조속 통과, 부패 사범 사형 집행, 생필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파티 주민들의 후원금 계좌 동결 사태 규탄에 동참했다.

정부 정책 지지 및 보완 요구한 RMP4

반면, 동부 자바주 방칼란군 출신의 '프라보워 대통령 프로그램 수호 마두라 자원봉사단(RMP4)'은 여타 단체들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반정부 성향의 구호 대신 무상 영양식(MBG) 프로그램을 비롯한 프라보워 정부의 주요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카르타를 찾았다.

RMP4 측은 MBG 프로그램이 아동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체계의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

14개 단체 연합 GERAM, '10대 요구사항' 제시

이번 시위에서 가장 광범위한 정치·사회적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은 14개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민규탄운동연대(GERAM)'였다. '#인도네시아를되찾자(#MerebutKembaliIndonesia)'라는 해시태그를 내건 이들은 국회의 입법·행정 감시·예산 심의 기능에 대한 대중의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10개 항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GERAM의 10대 요구사항에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의 정치적·법적 책임 촉구 ▲'적백 농촌 협동조합(KDMP)' 및 'MBG' 프로그램의 투명성 제고 및 전면 재평가 ▲대자본가 누진세 도입 및 서민 조세 부담 거부 ▲공공성 기반의 무상 교육·의료 보장 ▲생필품 가격 안정 및 노동자 임금 현실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수마트라 및 동누사텡가라 지역 재난의 국가 재난 선포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민간 영역 군사적 역할 확대 반대 및 탈군사화 ▲활동가 사법적 탄압 중단 및 정치범 석방 ▲부패 범죄 수익의 교육·보건·재난 복구 재원 전액 환원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처럼 2026년 8월 27일 자카르타 시위는 반부패 입법 촉구와 민생고 해결이라는 거대한 공감대 속에서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자카르타 KPKP, 남부 자카르타서 무허가 수의사 61명 적발…
"철저한 관리·감독 나설 것"

자카르타 수도특별구(DKI) 식량안보·해양·농업청(KPKP)이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진료 면허나 유효한 개업허가증(SIP)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해온 수의사 61명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관내 동물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무면허 진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자카르타 KPKP에 따르면, 남부 자카르타 10개 구(kecamatan)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수의사는 총 1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8명은 정식 인허가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고 있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61명은 유효한 개업허가증(SIP)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둥안 A. 시다발록(Hasudungan A. Sidabalok) 자카르타 KPKP 청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남부 자카르타 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가 아직 잠정적인 수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진료 면허를 신규로 신청 중이거나 갱신 절차를 밟고 있는 수의사들을 포함해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 및 최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당국은 무면허 수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하수둥안 청장은 관할 행정기관 및 공공질서유지군(Satpol PP)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수의사는 관련 법정 요건을 완전히 충족할 때까지 일체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KPKP는 이와 함께 관할 부서에 자카르타 수도특별구 내 수의사 진료 인허가 현황과 동물 보건 활동 전반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효한 SIP를 제시하지 못한 수의사들은 향후 진료를 재개하기 전 반드시 인허가 요건을 완비해야 한다.

한편, 자카르타 KPKP는 수의 진료 실태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는 한편, 시민들의 동물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2026년 자카르타 주지사의 주도로 도입된 '이동형 동물 진료 차량(모바일 클리닉)'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이동식 차량에서 애완동물을 치료하고 있는 자카르타 주정부 수의사 (Foto: jakarta.go.id)

이동 진료 차량은 일반 고정식 동물병원에 버금가는 우수한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반려동물 개체 수, 도로 접근성,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회 운영된다. KPKP 측은 이러한 이동형 진료 서비스를 통해 고정식 동물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동물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오케이 치과 병원

ROYCE
ROYCE DENTAL GROUP

OK Dental Clinic



1 한국-인도네시아 협진 시스템
Korea-Indonesia Collaboration System

2 임플란트-최소절개시술
Implant - Minimally Invasive Procedure



3 찌까랑 지점 오픈

OK치과가 특별한 이유
- ROYCE 본원 협진 시스템
-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 개인 맞춤 치료 플랜
- 사후관리 및 한국 연계 진료 지원

로이스치과
공식 모델 정준호

Monday - Friday = 10:00AM - 19:00PM
Saturday = 09:00AM - 17:00PM

OK Dental Clinic

자카르타 주소 (Jakarta)
Blok C, Jl. Wijaya II No.38, Rt.6/Rw.1
Pulo, South Jakarta 12160

찌까랑 주소 (Cikarang)
K-Eduplex Jl. Ganesha 2, Lot B1,
Deltamas, Pasirranji, Cikarang Pusat, Bekasi

문의 : Tel : 021-720-1779 HP : 0821-2255-7980 Email : okdental02@gmail.com

자카르타, 플라잉택시 '벨라 알파' 실물 시제품 전격 공개… 2029년 상용화 목표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스타트업 'PT 벨라 프리마 누산타라(Vela Aero)'가 자카르타에서 차세대 도심 항공 교통수단인 '벨라 알파(Vela Alpha)'의 실물 크기 전면 시제품을 공식 공개하며, 자국 항공 교통기술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기 수직이착륙(eVTOL) 기반의 이 도심 항공기 시제품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켕카렝 헬리포트(Cengkareng Heliport)에서 개막한 '헬리 엑스포 아시아(HEXIA) 2026' 행사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벨라 알파'는 1만 7,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심각한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조종사 1명과 승객 6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운송 수단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국내 항공우주 제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번에 공개된 벨라 알파는 운행 목적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준비됐다. 도시 내 이동에 최적화된 순수 전기형(eVTOL)은 UAM 노선 기준 최대 150km의 항속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항공유(SAF)를 사용할 수 있는 터보 발전기를 탑재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hVTOL)은 항속거리가 최대 500km에 달한다. 두 모델 모두 최고 순항 속도는 시속 250km에 이른다.

Vela Aero는 이번 시제품 공개를 발판 삼아 오는 2026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 항공적합성 및 항공기 운항국(DKPPU)으로부터 '설계조직 승인(DOA) Class D' 면허 획득을 추진한다. 이 면허가 승인되면, 이 회사는 독자적으로 국산 인증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Vela Aero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벨라 알파' 도입을 위한 160건의 구매 의향서(LOI)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A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맺은 양해각서(MoU)는 제외된 수치다.



도심 항공 교통수단인7인승 '벨라 알파(Vela Alpha)' (Dok. Vela Aero)

특히 이번 HEXIA 2026 행사에서는 현지 주요 항공 운항사인 '화이트스카이 아비에이션(Whitesky Aviation)'과의 전략적 MoU가 체결됐다. 양 사는 공항 셔틀, 도심 항공택시, 프리미엄 관광, 산업단지 물류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벨라 알파 50대를 도입하는 데 뜻을 모았다.

Vela Aero는 2026년 말 주요 인증 성과를 거둔 이후, 2027~2028년을 과도기로 설정해 LOI를 확정 구매 계약으로 전환하고, 버티포트(Vertiport)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관련 생태계를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2028년 말에는 최종 형식 승인(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고, 2029년 초 본격적인 상용 운항(EIS) 단계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과 메가시티의 교통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벨라 알파' 시제품 공개를 계기로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롬복 텐가, 사삭 엔데 전통마을 인기 급상승… 주말 하루 관광객 800명 돌파

인도네시아 서누사텡가라(NTB)주 중부 롬복군(Lombok Tengah) 푸줏(Pujut)면 셍콜(Sengkol) 마을에 위치한 사삭 엔데 전통 관광마을(Desa Wisata Adat Sasak Ende)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방문객 수가 급증하고 있다.

롬복 국제공항 및 만달리카(Mandalika) 경제특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춘 사삭 엔데는 최근 주말마다 하루 평균 약 800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는 평일 평균 방문객 수인 약 500명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로, 방문객의 스펙트럼도 국내 관광객을 넘어 해외 관광객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높은 관광객의 관심은 롬복 지역에서 문화 기반 관광 상품이 여전히 강력한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엔데 마을은 롬복섬의 원주민인 사삭족(Sasak)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과 관습을 엄격히 고수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통 가옥 단지다. 이 마을은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관광인식그룹(Pokdarwis)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통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 맞이, 환경 미화, 문화 공연 조율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운영 모델은 관광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일부 전통 가옥은 마을 주민들의 삶을 직접 체감하고 싶은 관광객들을 위한 소박한 홈스테이로 운영되고 있다.

약 1헥타르 규모의 사삭 엔데 마을은 규모가 크지 않아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으면서도, 사삭족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과 다채로운 문화적 삶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방문객들은 알랑알랑(Alang-alang, 띠풀의 일종)으로 지붕을 인 독특한 전통 가옥들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지붕의 경사각을 낮게 설계하여 방문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도록 한 건축적 특징은 집주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 흥미를 자극한다.

건축물 관람 외에도 사삭족의 전통 무예이자 예술인 '프레세안(Peresean)'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소 울음으로 만든 방패와 등나무 회초리를 이용해 겨루는 이 전통 무예는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다. 단, 상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람을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 측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대를 이어 전수받아 온 전통 직조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공예로 제작되는 전통 직물은 완성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며, 이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장인의 끈기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예술품의 가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대나무 막대기로 사테용 꼬치를 만드는 가내수공업이나 야자나무 잎줄기를 엮어 만드는 전통 모자 '케케레(Kekere)' 제작 과정 등 소박한 생업 활동도 엿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깊이 있는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기념사진 촬영을 넘어 현지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은 사삭 엔데 마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자 롬복 텐가 지역 관광 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시〉

파 꽃



김주명
(한국문협 인니지부)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누가 물어 온다면
막걸리가 더 좋다며 너스레 떨겠다고
마당에 우뚝 솟아난 짱돌에게 고백했다
사실, 나는 파꽃을 좋아한다
이방의 비탈에 그늘을 일궈 사는 내게 돌멩이란 흔한 일상, 하지만
한바탕의 우기는 세상을 초록으로 뒤집어 놓고
떠나올 때 기억처럼 단단해진 돌만 남겨놓았다
만일 누가 파꽃을 좋아한다면
꽃은 언제 피며 모양은 어떻고 향기며
어떤 분별 있는 성질이 있는가 정도는 꿰고 있어야 할 법
그래야만 좋아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애초 나는 파꽃을 좋아할 수 없다
내일이면 또 치워야 할 저 돌에게
그래서 막걸리를 들먹인 거라고 변명하고 싶다
그리고 모레쯤이면 나도 저 돌들로 지쳐 있겠지
햇살 긴 여름 여느 날
내 어머니도 지쳐
이제 먹을 만한 건 다 거뒀다며 내버려둔 텃밭에서
서리를 미리 뒤집어 쓴 채
파꽃이 피어 있었다

시작 노트:

삼 주 연속으로 '파꽃'을 주제로 한 시를 소개합니다. 김보배 시인의 '겨울대파'가 배란다에서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었고, 송민후 시인은 '파꽃'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본인의 졸시집 『바타비아 선』에 수록된 파꽃을 소개합니다. 같은 사물이 사람의 감정선을 ㅃ라모두 다르게 표현되는, 진정 시의 맛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글: 김주명(시인)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살기좋은 정주여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유턴하세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가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역할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인센티브 정보 제공
조세 정보 제공	부지선정 정보 제공
행정적 지원 제공	사업파트너 발굴 지원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보부터 행정지원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BJFEZ
Busan-Jinhae Free Economic Zone
대표번호 : 051) 979-5000